



■ 부이그 건설



■ 부이그 부동산



■ 콜라스



■ TF1



■ 부이그 텔레콤

기업개요 2012

2013년 2월

BOUYGUES

목차

마르텡 부이그 회장 인사말	1
부이그 현황	2
2012년 주요사항	8
부이그 그룹의 2012년 주요지표	
■ 재무지표	10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표	14
건설 부문 상세 소개	16
부이그 그룹의 2012년 현황	
■ 부이그 건설, 전세계적인 건설업체	18
■ 부이그 부동산, 프랑스 부동산 개발의 선두 주자	22
■ 콜라스, 도로 건설 부문의 세계 제일 기업	26
■ TF1, 프랑스 제1의 민영 텔레비전	30
■ 부이그 텔레콤, 이동통신, 유선통신, TV 및 인터넷 사업자	34
■ 각 부문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표	38
알스톰: 보다 지속가능한 세계 건설	40
부이그 그룹 연락처	

부이그 간략 소개

부이그는 파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다양한 사업분야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산업 그룹이다(파리 증권거래소 주가지수 CAC 40 구성 기업). 세계 80 여 개국 이상에 진출한 부이그의 총 직원수는 133,000 명을 상회한다. 사업부문은 건설(건설 및 토목, 부동산, 도로), 통신, 미디어이다. 부이그는 또한 알스톰의 최대주주이다.

건전한 재무구조, 안정적인 주주 구성, 강력하고 독창적인 기업문화를 지닌 부이그 그룹은 견조한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는 시장에 포지셔닝하고 있다.

부이그는 파리 증권거래소(CAC 40 구성 기업, 유로넥스트 파리 A 부문)에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 73 억 유로이다.

마르텡 부이그 회장 인사말

직원 수
133,780명

2012년 매출액
335.47억 유로 (+ 3 %)

그룹 지분 순이익
6.33억 유로 (- 41 %)

주당 배당금
1.60* 유로 (=)

목표
2013년 매출액
334.50억 유로 (=)

(*) 2013년 4월 25일의 주주총회 상정 배당금



부이그 그룹의 2012년 영업실적은 통신시장의 격변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상영업이익은 13억 유로로 5억 3300만 유로 하락하였는데, 감소액 중 4억 3900만 유로가 통신 부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룹의 순이익은 6억 3300 백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이그 그룹은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뛰어난 영업실적을 보인 결과, 건설 부문 - 부이그 건설, 부이그 부동산, 콜라스 - 의 수주잔량은 268억 유로를 기록하였으며(2011년 말 대비 8 % 증가), 고객들을 위해 고부가가치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며 국제 부문에 활발하게 진출하였습니다. TF1은 4 개의 무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 채널을 통해 시청률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이그 텔레콤은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B&YOU의 강력한 성장을 통해 무선통신 고객을 안정화하고, Bbox 상사시용의 성공적인 출시로 고속 유선 통신의 역동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각 부문은 대규모의
시장적응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부이그 그룹은 또한 견조한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하고 4G 주파수 매입에도 불구하고 순부채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은 그룹의 각 사업부문이 커다란 유연성을 보여준 해였습니다. 각 부문은 부이그 텔레콤의 사업개편 작업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의 시장적응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창조성, 노하우, 지속가능한 건설에 대한 열의와 실천은 미래의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고 고객들의 소요와 기대에 언제나 보다 더 잘 부응하기 위한 강점입니다.

우리 그룹의 향후 발전은 우리의 뛰어난 혁신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신속하게 반응하고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애사심, 그리고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2월 27일,

M. Bouygues

부이그 현황

1952년 창립된 이래 현재 세계 80여개국 이상에 진출한 부이그 그룹은 강력하고 독창적인 기업문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을 추구할 강력한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133,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부이그는 건설, 미디어, 통신 분야에서 부이그 건설, 부이그 부동산, 콜라스, TF1, 부이그 텔레콤으로 대변되는 5대 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다. 부이그는 또한 알스통(전기 발전 및 송전, 철도 교통)의 최대주주이다. 부이그 그룹은 파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파리 증권거래소 주가지수 CAC 40 구성 기업, 유로넥스트 파리 A 부문).

전략

부이그는 다각화된 산업 그룹으로 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시장에 포지셔닝함으로써 각각의 사업부문이 정기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사업 분야에서 부이그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객에게 언제나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 부문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국제부문의 개발, 특히 아시아와 중동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국제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이그 건설 47 %, 콜라스 44 %에 달한다.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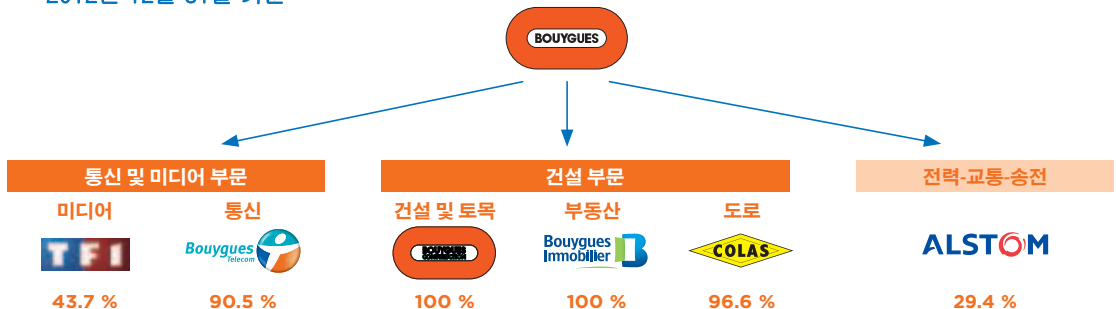
1952: 프랑스 부이그가 건설 부문 전문사 프랑스 부이그사(Entreprise Francis Bouygues - EFB) 창립. **1956:** 부동산 개발 분야로 사업 다각화(Stim). **1965:** 프랑스에서 건설 및 토목분야 사업 확장. **1970:** 파리 증권시장 상장. **1972:** EFB에서 부이그로 명칭 변경. 국제 부문 사업 시작. **1984:** Saur (2005년 매각)와 에너지 및 서비스 전문기업 ETDE 인수. **1986:** 도로 공사 부문 세계 1 위 기업 Screg 인수로 건설 및 토목 분야 세계 1 위사로 부상. **1987:** 부이그, 프랑스 제1방송사 TF1의 최대주주가 됨. **1994:** 부이그,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취득. **2006:** 알스통의 프랑스 정부 지분을 인수, 부이그는 알스통의 최대주주가 됨. **2008:** 부이그 텔레콤, 유선통신 서비스 제공 개시. **2011:** 인터넷 상에서만 판매되는 이동통신 요금 B&YOU 출시.

그룹의 장점

안정적인 주주구성. 자본에 있어서 주주 구성이 안정적이므로 부이그는 장기적인 전략 비전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부이그의 2대 주주는 우리사와, 마르텡 부이그 회장과 올리비에 부이그 부회장의 지주회사인 SCDM이다.

부이그 그룹 간략 조직도

2012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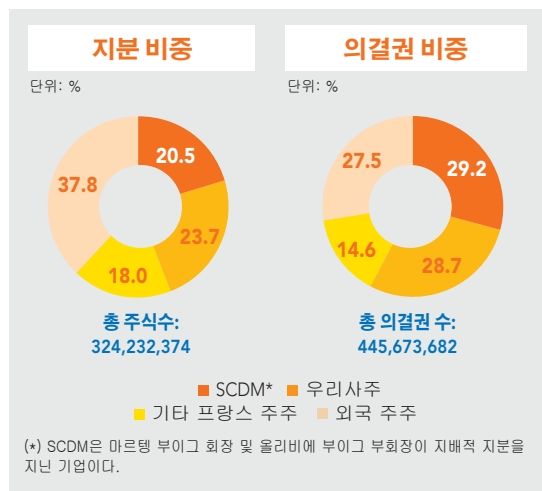
마이애미항의 터널 공사현장
(미국)

- SCDM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 20.5 %의 지분과 29.2 %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 2012년 12월 31일 기준 6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부이그의 주주이며, 이는 기업주식지수를 채택한 CAC 40 구성 기업 중 1 위이다. 직원들은 23.7 %의 지분과 28.7 %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강력하고 독창적인 기업문화. 5 대 부문에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부이그 그룹의 기업문화는 프로젝트 관리의 노하우와 인사현장의 3대 원칙인 존중, 신뢰, 형평에 기반한 인사관리로 요약될 수 있다.

■ 그룹의 주주 구성

2012년 12월 31일 기준



건조한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는 시장에 포지셔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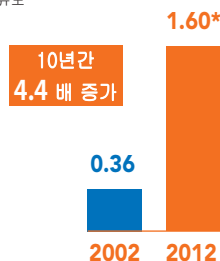
건설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모두 인프라와 주택 수요가 매우 크다. 지속가능한 건설(전력 저소비 건물이나 에너지 생산 건물, 친환경 지역 등)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이그는 각각의 시장에서 혁신적인 노하우를 개발함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프랑스 통신 및 미디어 시장 역시 빠른 기술 발전 및 사용자들의 변화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매우 건전한 재정 구조. 부이그는 건전한 재정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운데 투자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부이그 그룹은, 부채율이 매우 낮으며 - 2012년 말 기준 부채율은 41 % - 다량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부이그가 지급한 배당금은 지난 10 년간 4.4 배 증가하였으며, 2012년 평균 수익률은 7.5 %였다.

■ 배당금 변화

단위: 주당 유로



(*) 2013년 4월 25일 주주총회 상정 배당금

■ 조직 및 지배구조 2013년 2월 26일 기준

경영진

부이그 그룹 본사

Martin Bouygues
회장

Olivier Bouygues
부회장

Jean-François Guillemin
총무 이사

Philippe Marien
그룹 재무 이사
부이그 텔레콤 회장

Alain Pouyat
정보 및 신기술 총괄 사장

Jean-Claude Tostivin
인사 및 관리 총괄 부사장

5대 사업부문 최고 경영자

Yves Gabriel
부이그 건설 회장

François Bertière
부이그 부동산 회장

Hervé Le Bouc
콜라스 회장

Nonce Paolini
TF1 회장

Olivier Roussat
부이그 텔레콤 회장

이사회

Martin Bouygues

Olivier Bouygues
부회장 및 SCDM 상임대표

Patricia Barbizet*
Artémis 이사 겸 사장

François Bertière
부이그 부동산 회장

Francis Bouygues 부인

Georges Chodron de Courcel
BNP Paribas 부사장

Lucien Douroux*
전임 Indosuez Private Banking
감시 위원회 위원장

Yves Gabriel
부이그 건설 회장

Anne-Marie Idrac*
전임 SNCF 회장

Patrick Kron
알스통 회장

Hervé Le Bouc
콜라스 회장

Helman le Pas de Sécheval*
부사장, Veolia Environnement
총무 이사

Colette Lewiner*
Capgemini 회장 자문

Sandra Nombret
우리사주 대표

Nonce Paolini
TF1 회장

Jean Peyrelevalde*
Leonardo & Co 감시 위원회 위원장

François-Henri Pinault*
PPR 회장

Michèle Vilain
우리사주 대표

(*) 독립 이사

■ 총직원수 2012년 12월 31일 기준

133,780 명

프랑스 내의 직원수 77,040 명
(전체 직원의 58 %)

평균 연령: 39 세
평균 근속기간: 11 년

94 %의 직원이 정규직 사원

직급

전세계
(프랑스 제외)

관리직 및
기술직
38 %

현장사원
62 %

프랑스

관리직
30 %
중간 관리직*
30 %

현장사원
40 %

(*) 평사원, 기술직, 조장

부이그 그룹 근무

책임과 진화

부이그 그룹의 경영 원칙은 분권관리이다.

현장에 가장 가까운 부서에 책임이 주어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이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회사의 신뢰를 받는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수행한다.

부이그는 사내승진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법적 의무 이상의 예산을 교육에 투자한다. 프랑스의 경우 급여총액의 4.5 %를 직원 교육에 쓰고 있다.

직원 한 명 한 명의 경력개발에 일조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 직원수 77,000
명 이상



이동성

경력개발의 한 요소인 사내 이동성은 부이그 인사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각 부문별로 실행하고 있는 조처 외에도 본사 차원에서 부문별 이동성을 담당하는 부서와, 모든 채용 예정 직책들을 조회할 수 있는 인트라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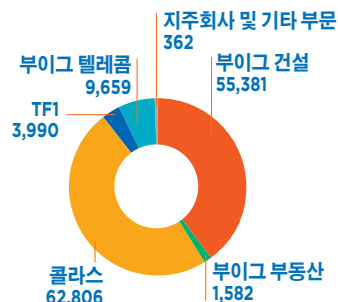
사생활과 직장생활

건설부분의 경우 근무지를 자주 옮겨야 하며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가 구성된다는 점 때문에 업무량에 있어 애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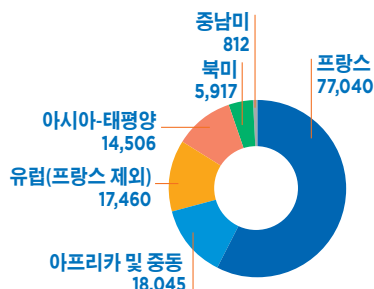
부이그 그룹은 이로 인해 직원들의 사생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휴가저축제도, 신기술을 사용한 원거리 근무, 일부 자회사에서 어린이집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보육편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조처들을 실행하고 있다.

■ 그룹 직원수 2012년 12월 31일 기준

부문별 그룹 직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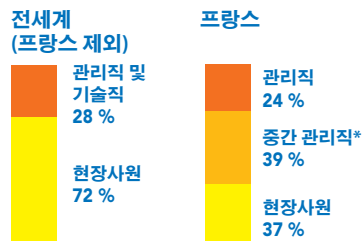
지역별 그룹 직원수



■ 2012년 직원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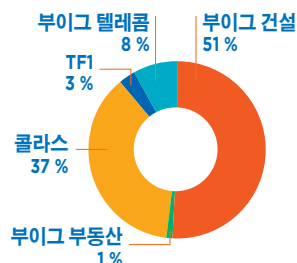
전세계에서 **20,643** 명
신규 채용
프랑스에서 **9,667** 명 채용

직급별 채용 현황



(*) 평사원, 기술직, 조장

부문별 직원 채용(프랑스)





형평

처우의 형평성이란 직원의 프로필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각자의 성공에 적절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천명된다. TF1과 부이그 텔레콤은 프랑스 규격협회 Afnor의 다양성 라벨을 보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말해 모든 부문에서 남녀평등, 연령, 장애, 출신에 대한 차별 타파 정책을 펴고 있다.

환경 보호

에너지 - 탄소 전략

부이그는 자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우선 감축 행동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2년 전그룹 차원에서 제1차 연결온실가스배출평가를 발표하였다.

이 탄소평가를 통해 그룹 사업활동에 있어서 탄소 집중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부이그 그룹은 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에 있어 목재를 더욱 많이 사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재활용 및 친환경 설계

각 부문별로 재활용 및 친환경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콜라스는 자재 재활용을 도로 건설 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며, 부이그 건설은 설계에서 철거에 이르기까지 환경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조물들을 제안하는 동시에, CSTB의 "Elodie®"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부이그 텔레콤은 매장의 친환경 설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부이그 본사 및 자회사들은 IT 및 전자 장비를 수거, 재활용하고 있는데, 2012년 수거 및 재활용한 장비 수는 17,590 대를 상회했다.

생물학적 다양성과 독성 타파 운동

건설 부문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콜라스는 채석장 및 골재채취장에서 자연과학자 및 비정부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보호생물종 및 멸종위기생물종과 그들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채굴활동이 종료되면 사업장들을 다시 재정비한다.

부이그 건설에서는 2012년 공동경제이해그룹(GIE) 바이오지티브(Biositiv)를 결성하여 인프라 사업의 여러 관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그룹은 보상 측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양(+)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추구(생물학적 다양성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지티브는 환경지속가능발전및에너지부로부터 2011-2020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한 국가전략(SNB)에 참여하는 그룹으로 선정되었다.

미디어 및 통신 부문은 직원들과 시청자들(예를 들면 우슈아이야 TV 채널)을 대상으로 한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제고 운동을 통해 일조하고 있다.

독성 타파 운동에 있어 부이그 부동산과 부이그 건설은 부동산 개발 사업시 실내공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CSTB: 건물부문과학기술원(Centre scientifique et technique du bâtiment)



몽펠리에 부근의 A54
고속도로 보수 공사(폴라스)

지역공동체 참여

후원

후원 정책은 그룹 차원이나 주요 부문 차원에서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시민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공동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부이그 그룹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진출한 지역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 부이그 재단 8기생들

본사 차원에서 부이그의 후원 정책은 주로 사회, 문화, 교육 등 3대 활동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직원들이 지지하는 프로젝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정책을 실행한다. 2005년 이래 **프랑스 부이그 재단**은 학업에의 열정은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 수능 바칼로레아 합격자를 400 명 가까이 지원하였다. 이들은 부이그의 직원인 후원자들의 독려하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 혁신과 협업

부이그 그룹은 환경 존중에 중점을 둔 전사적인 혁신 정책을 펴고 있다. 각 자회사에서 연구 및 혁신을 담당하는 팀 외에도 그룹 차원의 e-lab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고안,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신규 건물의 에너지 조절 툴로서 Ademe (환경및에너지조절청)의 재정지원을 받은 바 있는 부이그 건설의 에너지-패스® 상품은 바로 e-lab이 개발한 것이다.

e-lab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혁신하기>, <디자인과 혁신>, 또는 <구매와 혁신> 등의 다양한 주제로 혁신에 대한 오전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룹의 각 분야에서 연구, 혁신, 기술뿐 아니라 마케팅과 전략을 담당하는 관리직 직원 500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이그 그룹은 노하우의 공유 및 직원들간의 네트워크를 장려한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BYpedia라는 이름의 협업 사이트는 전직원이 사용할 수 있다. 사내에서 개발된 이 사이트는 Cegos상의 <공동체와 협업> 부문 <2012년 협업 기업>상을 수상하였다.

부이그 그룹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다 상세한
정보와 지표를 조회하십시오

www.bouygues.com
상세 정보 조회 ➤

2012년 주요 사항

건설 및 토목: 뛰어난 영업활동

부이그 건설의 수주잔량은 지난 3년간 평균 13%의 성장을 보인 후 2012년에 12월 말에는 171억 유로의 역사적 수준을 기록하였다.

부이그 건설은 파리의 법원 건물, 남-몽펠리에 우회 철로, 홍콩과 주하이 및 마카오를 연결하는 교량, 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마하나콘 빌딩 건설 등, 2012년 프랑스 및 국제부문에서 대형 계약을 수주하였다.

부이그 텔레콤: 변화의 한해

프랑스의 네 번째 이동통신사업자의 등장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약정기간이나 단말기 없이 제공되는 요금제의 강력한 부상에 당면한 부이그 텔레콤은 이동통신 사업부문을 전면 개편하였다. 요금제를 재조정, 단순화하고 자산을 매각하였으며 2013년 말까지 3억 유로를 절감하는 경비절감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부이그 텔레콤은 또한 자사 유선통신 사업의 강력한 성장을 심분 활용하는 동시에 Bbox 상사시용으로 부단히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콜라스: 지속적인 발전

콜라스는 프랑스 내 도로 사업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북미 및 호주, 그리고 철도 부문의 성장 발판을 발전시켰다.

그 결과 콜라스는 베네수엘라의 로스테케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지하철 연장 계약에 이어 알제의 지하철 연장 계약을 수주하였으며, 철도 장비 관리 및 수리 전문사인 영국의 풀만 레일을 인수하였다.

부이그 부동산: 녹색 부동산 강화

프랑스 시장에서 주택 예약매물이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부이그 부동산은 녹색 혁신 부문의 선두적 입지로 기업 부동산 시장에서 계약을 수주하였다. 낭테르 및 루에이-말메종의 에너지 생산 건물 Green Office®, 재건축 사업(Rehagreen®), 리용의 히카리나 파리 지역의 IssyGrid® 등 지속 가능 지구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TF1의 재전개

광고시장의 침체 속에, TF1은 그룹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동시에 2014년 말까지 반복적 비용 8500만 유로 절감 달성을 목표로 하는 비용최적화계획 제2단계를 개시하였다.

TF1은 또한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즈와 유로스포츠, 프랑스 유로방송 서비스, 콘텐츠 제작 등 3대 주요 부문에 대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디스커버리 그룹은 디스커버리 채널 등 전세계 153개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르포, 주제별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세계 최고의 미디어 그룹이다.



방콕의 마하나콘 빌딩 사업(태국)



HD1 채널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팬암>



모로코 탕헤르 Med 2 항구 복합단지



영국의 철도 관리 및 수리



루에이-말메종의 Green Office®

■ 주요 지표

13억 유로 부이그 건설, 콜라스, 알스툼이 참여하는 님-몽펠리에 우회 철로 PPP(임대형 민자사업) 계약액.

1,078,000 명의 고객이 B&YOU에 가입.
B&YOU는 2011년 업계 최초로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25 유로 이하의 약정기간 없는 24시간 무제한 사용 요금제를 선보인 바 있다.

4 개의 무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 채널 제공.
HD1으로 TF1은 텔레비전 서비스 라인업을 공고히 하고 TF1 그룹 소속 채널 통산 28.4 %*의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 4세 이상의 개인. 출처: 미디어메트리의 미디어맷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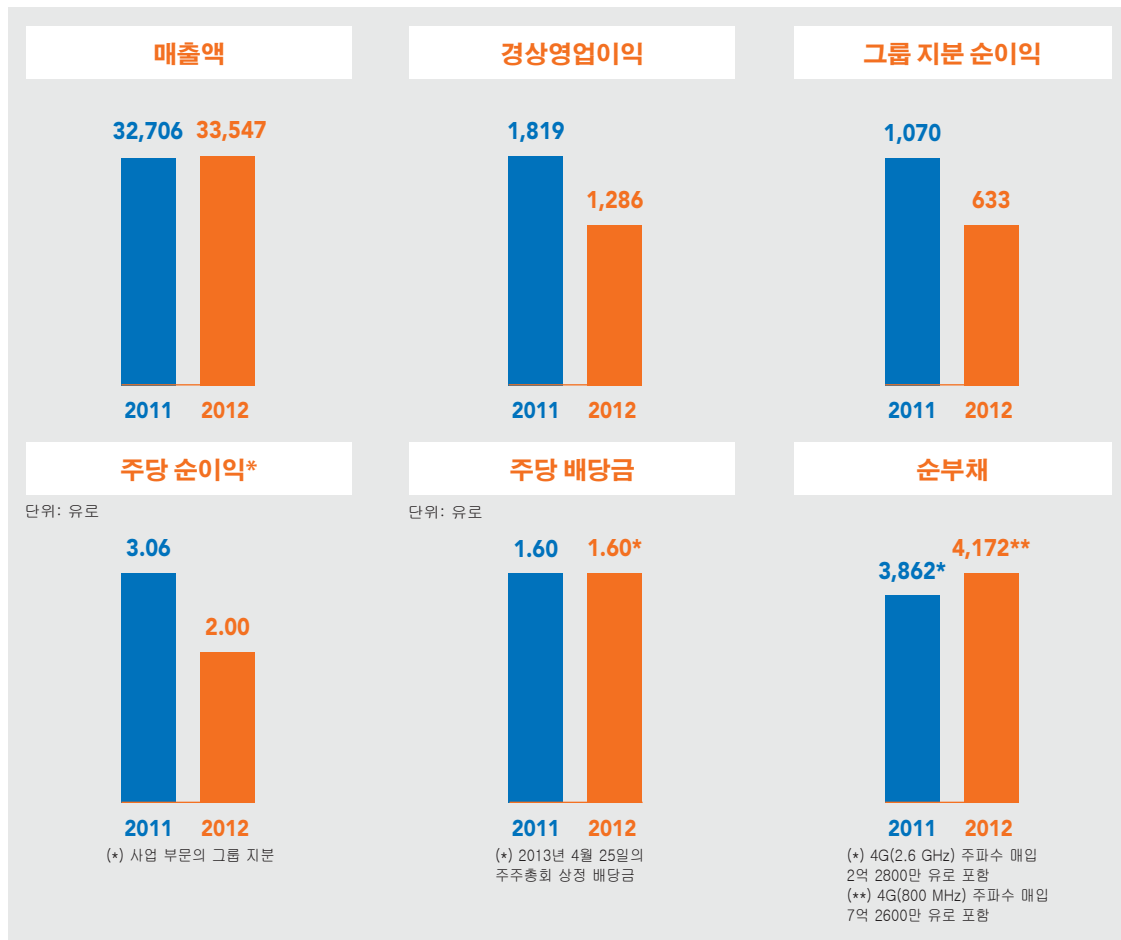
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연간 **76.9 kWh/m²**의 에너지를 생산, 연간 70.8 kWh/m² 사용: 사용 첫 해 동안 프랑스 최초의 에너지 생산 사무실 건물인 르몽의 Green Office®는 약정한 바를 달성하였다.

그룹의 직원들은 부이그 자본의 **23.7 %**를 보유하고 있다. 부이그는 프랑스 주가지수 CAC 40를 구성하는 40대 기업 중 우리사주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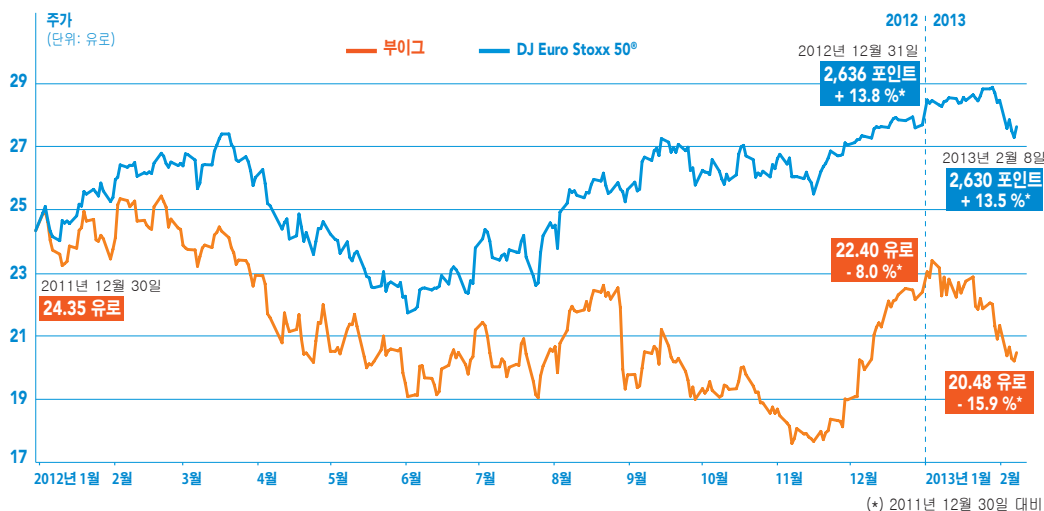
부이그 그룹의 2012년 주요 지표

알스통은 지분법 평가이익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킴: 순이익에만 기여

(단위: 백만 유로)



2011년 말 이후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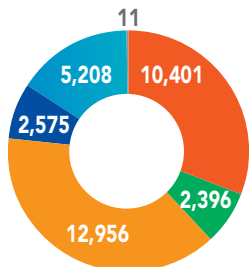


■ 사업부문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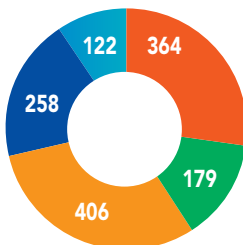
알스통은 지분법 평가이익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킴: 순이익에만 기여

(단위: 백만 유로)

매출액
335.47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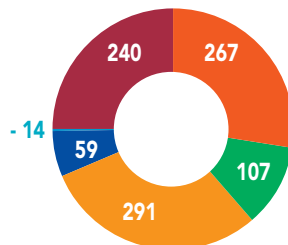


경상영업이익^a
12.86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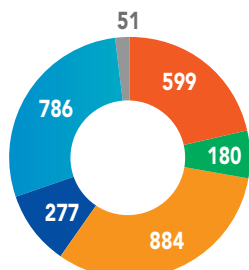
(a) 지주회사 및 기타 부문의 경상영업이익은 - 4300만 유로.

그룹 지분 순이익^b
6.33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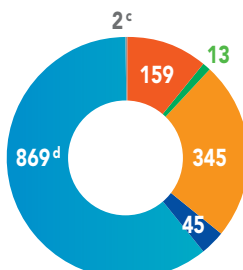


(b) 지주회사 및 기타 부문의 순이익은 - 3.17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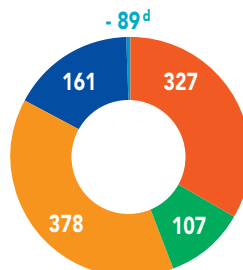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77억 유로



순영업투자
14.33억^d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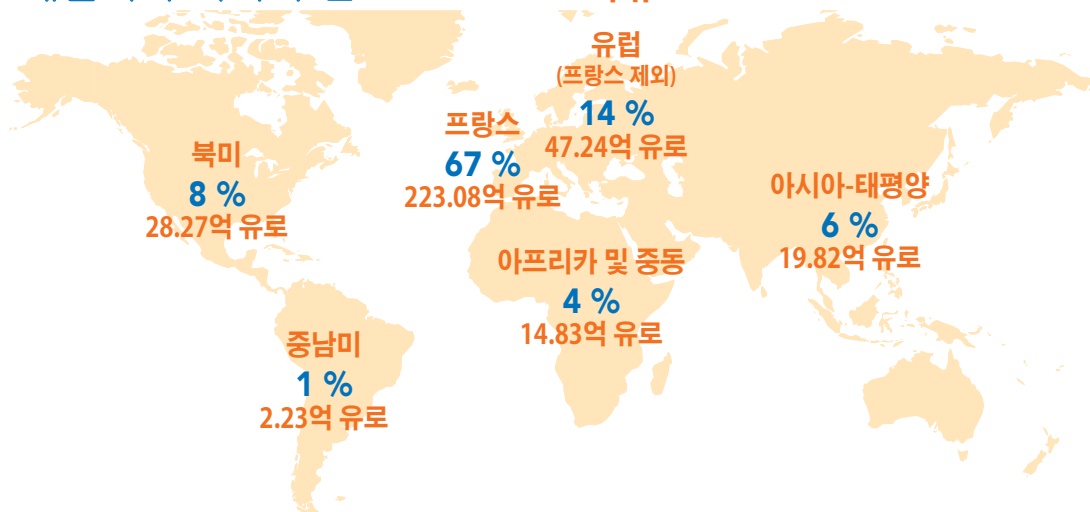
잉여현금흐름^e
7.24억^d 유로



(c) 4G 주파수 매입을 위한 금융비용 3천만 유로의 자본전입 고려분 제외. (d) 4G 주파수 매입을 위한 투자(총 7.26억 유로, 그 중 부이그 텔레콤 지분 6.96억 유로) 및 예외적인 자산 매각 2.07억 유로 제외. (e) 잉여현금흐름 =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순금융비용 - 세금 - 순영업투자. 잉여현금흐름은 운전자금 소요 변동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지주회사 및 기타 부문의 잉여현금흐름은 - 1.6억 유로, 4G 주파수 매입을 위한 금융비용 3천만 유로의 자본전입 고려분 제외.

■ 부이그 건설 ■ 부이그 부동산 ■ 콜라스 ■ TF1 ■ 부이그 텔레콤 ■ 지주회사 및 기타 부문 ■ 알스통

■ 매출액의 지리적 분포도: 335.47억 유로



2012년 요약 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 12월 31일 기준

자산 (단위: 백만 유로)	2011	2012
• 유형 및 무형 고정자산	7,751	8,337
• 영업권	5,580	5,648
• 고정 금융자산	5,855	5,913
• 기타 고정자산	256	272
고정자산	19,442	20,170
• 유동자산	12,042	12,073
• 현금 및 현금등가물	3,415	4,487
• 금융상품*	23	24
유동자산	15,480	16,584
자산 총계	34,922	36,754

(*) 금융부채의 정확한 가치 환산

부채 (단위: 백만 유로)	2011	2012
• 자기 자본(그룹 지분)	8,361	8,578
• 소액주주 지분	1,317	1,500
자기자본	9,678	10,078
• 장기부채	6,807	7,502
• 장기 미지급 비용	1,865	2,173
• 기타 고정부채	203	170
고정부채	8,875	9,845
• 유동 금융부채	216	951
• 유동부채	15,876	15,650
• 단기은행차입금 및 당좌잔고	239	189
• 금융상품*	38	41
유동부채	16,369	16,831
부채 총계	34,922	36,754
• 순 금융부채	3,862	4,172

■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유로)	2011	2012
매출액	32,706	33,547
경상영업이익	1,819	1,286
• 기타 영업이익 및 비용	38	(166)
영업이익	1,857	1,120
• 순 금융비용	(277)	(290)
• 기타 금융이익 및 비용	(13)	11
• 법인세 비용	(528)	(330)
• 참여지분의 손익배당	198	217
순이익 총계	1,237	728
• 소액 주주 지분	(167)	(95)
연결 순이익(그룹 지분)	1,070	633

www.bouygues.com
상세 정보 조회 ➡

■ 연결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 유로)	2011	2012
영업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25	2,777
• 단기 지급 세금	(399)	(378)
• 운전자금 소요에 따른 현금흐름	(56)	42
A - 영업활동 관련 현금흐름	2,870	2,441
투자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		
• 순영업투자	(1,886) ^a	(1,952) ^b
• 기타 투자활동 관련 현금흐름	9	(201)
B - 투자활동 관련 현금흐름	(1,877)	(2,153)
재무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		
• 연내 지불 배당금	(694)	(608)
• 기타 재무활동 관련 현금흐름	(2,431) ^c	1,436
C - 재무활동 관련 현금흐름	(3,125)	828
D - 환율 변동 사항 및 기타	26	6
순 캐시 포지션의 변동 (A + B + C + D)	(2,106)	1,122
• 기타 비통화요소 흐름	-	-
기초의 현금	5,282	3,176
기말의 현금	3,176	4,298

(a) 4G(2.6 GHz) 주파수 투자 -2.28억 유로 포함

(b) 4G(800 MHz) 주파수 투자 -7.26억 유로 포함

(c) 자사주 공개 매입에 따른 자본금 감소 포함: -12.5억 유로

사업부문별 2012년 현황

2012년 부이그 그룹의 매출액은 335억 유로(+ 3 %)를 기록했다. 예상했던 바대로 영업실적은 주로 이동통신시장의 격변을 반영하고 있다.

 부이그 건설의 매출액은 9 %(환율 요인을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4 %) 상승한 106억 4000만 유로에 달했다. 진행중인 계약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경상영업이익은 건조한 3.4 %의 실적을 보였으며, 순이익은 18 % 증가한 2억 6700만 유로를 기록했다.

 부이그 부동산의 매출액은 3 % 감소한 23억 9600만 유로였다. 경상영업이익은 7.5 %로, 큰 폭으로 위축된 프랑스 주택 예약매물 시장에 대한 조정 정책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순이익은 11 % 감소한 1억 7백만 유로를 기록했다

 콜라스의 매출액은 5 %(환율 요인을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3 %) 증가하여 130억 3600만 유로를 기록했다. 경상영업이익은 6천만 유로 감소한 4억 6백만 유로를 기록했다. 이는 정유 기반 제품 판매 손실과 미국에서의 수익성 하락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부 유럽에서는 재무 균형 회복 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4분기 프랑스 도로 사업의 양호한 실적으로 상반기 악천후로 인한 공사 지연을 상쇄하고 2012년 영업이익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으며, 순이익 3억 2백만 유로(2011년 대비 10 % 하락)



로 한 해를 마감하였다.

TF1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인 26억 2100 백만 유로로, 광고 매출 하락(그룹 전체 기준 3 % 하락)을 기타 사업의 성장(2011년 대비 6 % 성장)으로 상쇄할 수 있었으나,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쳐 영업이익은 2억 5800만 유로(2011년 대비 9 % 감소)에 머물렀다.

2억 1천만 유로의 영업이익은 2 단계 사업최적화계획에 따른 4800만 유로의 비경상 지출을 반영한 것으로, 순이익은 26 % 감소한 1억 3600만 유로를 기록했다.



부이그 텔레콤의 총 매출액과 네트

워크 매출액은 9 % 감소하여 각각 52억 2600만 유로와 46억 3100만 유로를 기록하였다. 고속 유선통신 부문의 매출액은 크게 상승하여 6억 2700만 유로(2011년 대비 51 % 증가)를 기록하였다.

2012년 프랑스 이동통신 시장의 격변으로 재무 실적은 크게 하락하였으나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EBITDA 9억 8백만 유로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경상영업이익은 1억 2200만 유로로 EBITDA의 감소와 감가상각 및 순준비금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다.

2012년 영업이익은 4백만 유로로, 1억 1800만 유로의 비경상 지출을 반영하고 있다. 순이익은 1600만 유로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2012년 시작한 사업개편 계획의 조처들은 모두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2012년에만 벌써 1억 5100만 유로의 경비절감을 달성할 수 있었다. 2013년 경비절감분으로 발표한 3억 유로 역시 달성이 확실시된다.

기업 책임 지표

www.bouygues.com
상세 정보 조회

부이그는 다양한 사업부문이 모두
엄정한 기업 책임 기준을 공유하고
있다. 수치화된 지표를 보면 부이그
그룹의 사회적, 기업적, 환경적 책임
정책의 성과를 알 수 있다.

■ 건강 및 안전

위생 및 안전은 모든 사업부문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건설 부문 자회사는 특히 (본질적으로 위험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공사현장에서 각종 예방
노력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동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자족하지 않고
"무사고"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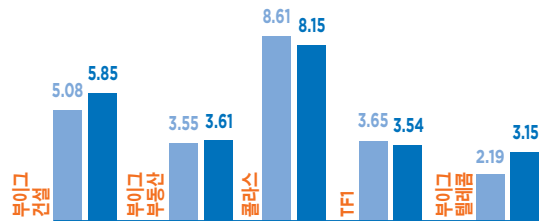
- 콜라스와 부이그 건설은 건강, 특히 중독 방지에
대한 야심찬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 도로 위험 및 심리, 사회적 위험 예방 조치 또한 전
사업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다.

산재 사고

빈도*

■ 2011 ■ 2012

범위: 전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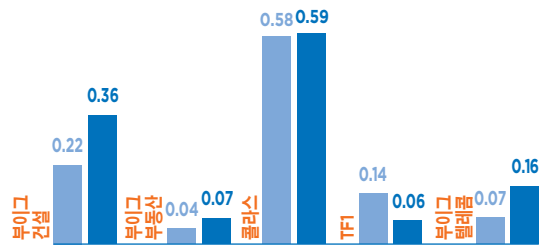


(*) 근무종단을 동반한 산재사고 수 x 1,000,000 / 근무 시수

심각도*

■ 2011 ■ 2012

범위: 전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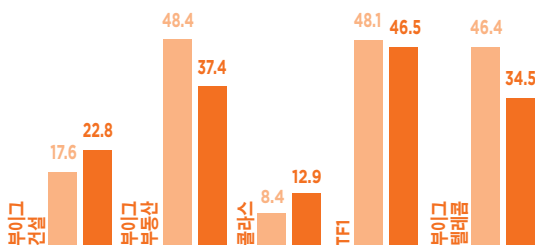


(*) 근무종단일수 x 1,000 / 근무 시수

그룹내 여성의 위치

■ 직원 중 여성 비중
■ 여성 관리직*

범위: 프랑스
단위: %



(*) 해당 직원 총직원 수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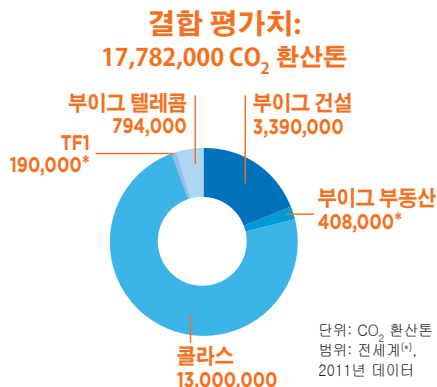
■ 남녀동등 정책

남녀동등 장려는 모든 자회사에서 공유하는 목표이다.

건설 부문은 전통적으로 남성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이므로 부이그 건설과 콜라스의 과제는 채용시
입사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도록 여성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양사는 대학과
비대학 부문 교육기관에서 홍보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보다 전반적으로 부이그 그룹의 모든 기업들은 관리직
내 여성의 위치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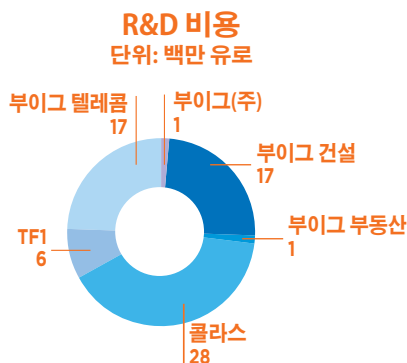
사업활동의 영향을 측정하고 배출감축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부이그 그룹은 2011년 전 사업부문 통산 온실가스 배출 결합 평가를 단행하였다.

계산 대상:

- 사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관련 배출: 화석 에너지, 연료, 전기
- 기타 간접 배출(직원 및 원자재 - 강철, 콘크리트, 역청 - 의 수송 및 생산 요소 서비스, 화물, 설비 감가상각 및 폐기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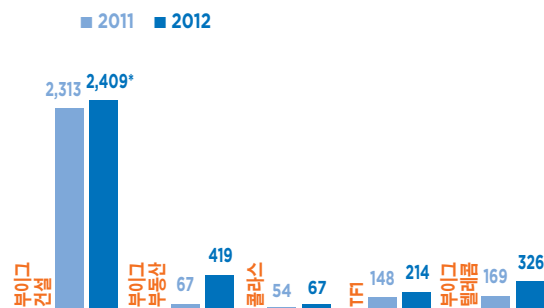
■ 연구 및 개발

부이그 그룹의 혁신 정책은 환경존중을 고려하는 신제품 및 소재, 공정, 서비스 개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부이그는 자회사들의 연구소에 힘입어 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보완하여 e-랩이라는 전문가 팀이 본사 차원에서 일하고 있다. e-랩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팀으로서, 소속 엔지니어들은 다수의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의 혁신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을 개발하고 있다.



■ 책임있는 구매

Ecovadis 및 중소기업 설문지로
평가한 협력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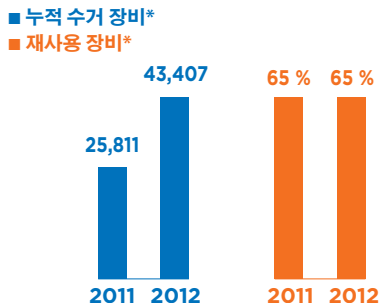
(*) 2012년 범위 변경.
2011년에도 동일 계산법 적용.

책임있는 구매 위원회는 구매의 전과정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이 적용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구매 전에는 분포도와 위험 분석을 실시하며, 협력업체 선정(제품 및 서비스 분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을 포함시킴), 계약 단계(2009년 개발한 협력업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 헌장 삽입) 및 계약 실행(협력업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적 평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감사 실시) 전과정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이 적용되도록 장려하고 있다.

■ 폐기물 관리

부이그 그룹은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Iso 14001 인증에 따른 조치를 바탕으로 전사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조치들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부이그와 자회사들은 동 분야에 적합한 기업인 ATF 가이아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전자 장비 및 IT 장비 폐기물 처리를 개선하였다.

■ 수거 및 재활용



(*)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

건설

부문 상세 소개

부이그 건설(건설 및 토목, 에너지, 서비스), 부이그 부동산(부동산 개발) 및 콜라스(교통 인프라)는 건설 부문 세계 1위사인 부이그 그룹의 건설 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 그룹의 건설 부문은 2011년 대비 6 % 증가한 258억 유로의 총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수주 잔량은 8 % 증가하여 268억 유로에 달함으로써 영업 부문의 역동성을 잘 대변하고 있다.

국제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이그는 3대 사업부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고부가가치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고객의 소요에 부응하는 솔루션

부이그의 건설 부문은 기술성이 탁월한 노하우로 고객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예를 들어 부이그 건설의 경우, 도심 터널 공사 및 교량 공사로 누적된 전문성을 통해 홍콩과 마카오를 잇는 거대 교량 건설 등 대형 계약들을 홍콩에서 수주한 바 있다.

시장 적응력 또한 부이그의 강점이다. 일례로 부이그 부동산은 엔트리급 및 중급 주택시장에 포지셔닝 함으로써 2005년 이래 프랑스 시장 점유율을 정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었다.

부이그는 건설 부문을 통해 설계, 관리, 자원조달을 아우르는 PPP(임대형 민자사업) (프랑스 국방부 건물, 파리 법원 건물, 알스통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님-몽펠리에 고속철 우회철로 사업) 등 고객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안함으로써 차별성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성장을 견인하는 시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콜라스의 경우 도시교통 분야에 대한 노하우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콜라스는 특히 2012년 알제 지하철 신규 계약을 수주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건설 정책

에너지 리모델링은 건설 부문의 주요 과제이다. 에너지의 희소성으로 인해 기존 에너지 설비 일체를 장기적으로는 개조하여야 한다.

부이그 건설(본사 건물 챌린저를 상징적으로 리노베이션 한 바 있음)과 부이그 부동산(Rehagreen® 방식)은 이 분야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자리잡았다.

신규 건물의 경우 부이그 그룹은 에너지생산(positive energy) 건물 분야의 전문기업이기도 하다. 부이그 부동산이 설계, 판매하는 드동의 Green Office®는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의 더 많다.

부이그는 미래형 건물로서 공동에너지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도록 설계, 건설된 자율에너지 건물 컨셉(ABC: Autonomous Building Concept)을 개발하고 있다.

부이그는 에너지효율 관리 툴로서 신규 건물과 기존 건물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계약(CPE)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계약상의 보장조항도 포함시킬 수 있는 계약이다.

부이그 그룹은 또한 부이그 부동산의 UrbanEra® 컨셉에 기반한 보르도의 김코나 리용의 히카리 등 친환경 지구, 또 이씨-레-몰리노(오-드-센느 지방)의 IssyGrid®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등의 컨셉을 개발하고 있다.

환경을 존중하는 도로 또한 현장에서 적극 실천하고 있는 사항이다. 콜라스는 건설자재의 효율적 재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도로 건설시 에너지 저사용 코팅재 및 석유 원료를 식물성 원료로 대체한 일련의 제품들을 제안하고 있다. 특수 코팅재는 또한 소음공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도하의 카타르 석유지구 공사현장 (카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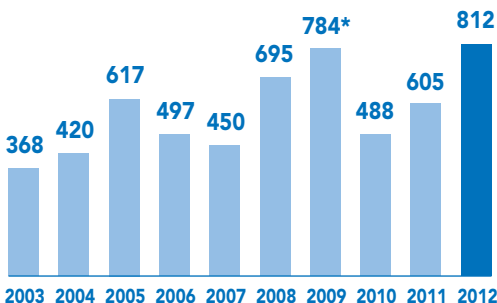
강력하고 다각화된 국제 진출

부이그는 세계 80여 개국 이상에서 건설 부문 사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수년간 전세계 모든 대륙에서 대형 계약을 수주해 왔다. 부이그 건설 및 콜라스의 매출액 중 45 %가 국제부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볼 때 이를 잘 알 수 있다.

■ 지표

건설 부문 잉여현금흐름

단위: 백만 유로



(*) 부이그 건설의 공공서비스 대행 부문 악시온 일부 매각으로 발생한 1억 6300만 유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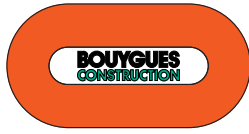
잉여현금흐름은 건설부문이 부채비용, 세금, 운영업자료를 지불한 후 잉여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운전자금소요변동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2012년 집중 조명

부가가치 솔루션 제안. 2012년 2월 부이그 건설의 자회사 2 개사로 이루어진 아렐리아 프로젝트사가 새로운 파리 법원건물 계약을 수주하였다. 부이그 바피망 일드-프랑스는 설계 및 건설을 담당하고, 엑스프림(부이그 에너지 & 서비스)은 27 년간 운용과 관리를 담당하는 구조이다. 착공은 2013년 여름으로 예정되어 있다.

에너지. 2012년 4월, 부이그 부동산은 이씨-레-물리노(오드-센느 지방)에 최초의 지능형지역전력망(스마트그리드) IssyGrid® 를 런치하였다. 가정의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하고 원거리에서 조절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위해 부이그 텔레콤은 시범 아파트 10 채에 설비제공을 하였다. 부이그와 알스툼의 공동 회사인 엠빅스가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데이터 집계 또한 담당하고 있다.

도시교통. 콜라스 레일이 수주한 알제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은 노선 길이 4 km, 4 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시스템 일체와 역사 조성을 모두 포함한 계약이다. 개통은 2014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다.



전세계적인 건설 업체

부이그 건설은 건설 및 토목, 에너지 및 서비스 분야의 전세계적인 주요 기업이다. 부이그는 자원조달, 설계, 건설, 운용, 사후관리 등 프로젝트 전과정을 아우르는 노하우로 인정받고 있다.

뛰어난 영업 활동

2012년 **수주량**(120억 유로)은 기록적 수준에 달했다. 프랑스의 경우 대형 계약 두 건(파리 법원 건물, 님-몽펠리에 우회 철로)을 수주함으로써 72억 유로를 수주하였다.

국제부문 수주량은 48억 유로로, 1억 유로 이상의 계약이 9 건이었다. **환경 라벨이나 인증** 약정 건물이 총 수주량의 57 %에 달했다.

건조한 영업 실적

건설 및 토목(86 %)과 에너지 및 서비스(14 %) 합산 **매출액**은 2011년 대비 9 % 성장하였다. 국제부문(매출액의 47 %)과 프랑스 모두 이러한 성장에 기여하였는데, 국제부문은 13 %, 프랑스는 5 % 성장하였다. **영업이익**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매출액의 3.4 %), **순이익**은 크게 신장되었다(2011년 대비 18 % 증가).

가시성 강화

2012년 말 기준 **수주잔량**은 12 % 증가한 171억 유로(그 중 국제부문 비중 45 %)에 달한다. **2012년 말 기준 2013년 기수주 물량**은 85억 유로로, 2013년 매출액 목표치의 79 %에 달한다.

2013년 이후 실시할 공사의 수주잔량 또한 16 % 증가하여 전체의 51 %로, 향후 사업활동의 가시성도 크게 강화되었다. 부이그 건설의 **우수한 수**

직원수
55,381 명

2012년 매출액
106.40억 유로 (+ 9 %)

경상영업이익
3.4 % (- 0.2 포인트)

그룹 지분 순이익
2.67억 유로 (+ 18 %)

수주잔량
171억 유로 (+ 12 %)

목표
2013년 매출액
107억 유로 (+ 1 %)

2012년 주요 사항

주요 계약 체결: 파리 법원 건물 (8.23억 유로) • 님-몽펠리에 우회 철로(7.33억 유로) • 홍콩-주하이 및 마카오를 연결하는 교량 (6.07억 유로).

공사 진행중인 사업: 도하의 카타르 석유지구 • 파리의 국방부 건물.

인도 완료 사업: 남아공의 도시고속철도 하우트레인

• 캐나다 왕립 헌병대 본부.

지속가능한 건설: 연구개발 예산의 49 % (2011년 46 %)

주잔량 구조, 뛰어난 적응력 및 건실한 재무구조는 불확실한 경제환경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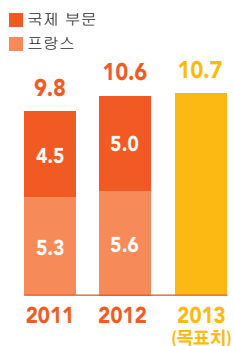
부이그 건설은 특히 에너지 효율과 환경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총괄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함으로써 더욱 역동적인 지역에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홍콩-마카오-주하이를
연결할 교량의 조감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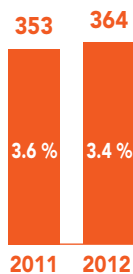
단위: 십억 유로



경상영업이익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을 %로 표기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 그룹 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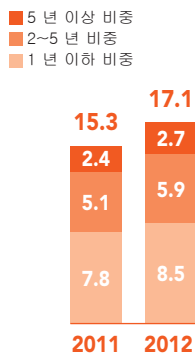
순현금

단위: 십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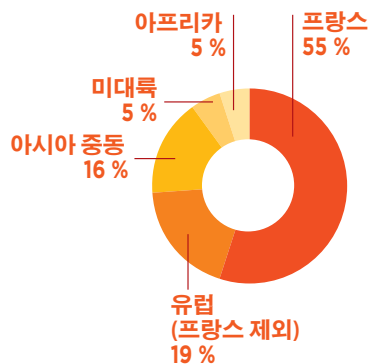


수주잔량

단위: 십억 유로



지역별 수주잔량





파리 국방부
건물 공사현장

■ 고부가가치 사업

2012년, 대형 사업인 파리 법원 건물 및 님-몽펠리에 우회철로를 수주함으로써 파트너십 계약(설계, 건설, 운용) 부문의 부이그 건설의 전문성이 입증되었다. 폴라스와 알스툼이 수주한 님-몽펠리에 우회 철로 같은 사업은 산업과 환경 부문의 전문성을 모두 필요로 한다. 유명한 마르세이유 경륜장 재조성 사업에 따른 100,000 m²의 부동산 단지 또한 부동산 개발 분야의 부이그 건설의 노하우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의 쇼케이스

부이그 건설은 고객을 위해 구조물의 수명기간 전반에 걸쳐 좋은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상징적인 예가 바로 에너지 리모델링이 진행중인 본사 건물 챌린저로, 부이그 건설 노하우의 쇼케이스라 할 수 있다. 2012년 챌린저는 세계 최초로 LEED® 플래티넘, BREEAM® 및 HQE® 3중 인증을 획득한 건물이 됨으로써 이 리노베이션 사업에 국제적인 입지를 부여하였다. 부이그 건설의 사업은 한 지구나 도시 단위로 광범위하게 제공되기도 하는데, 현재 건설중인 스위스 친환경 지구 에켄노트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생-캉탱-앙-이블린의
챌린저 건물

카이 락 유람선
터미널 공사현장

■ 국제 부문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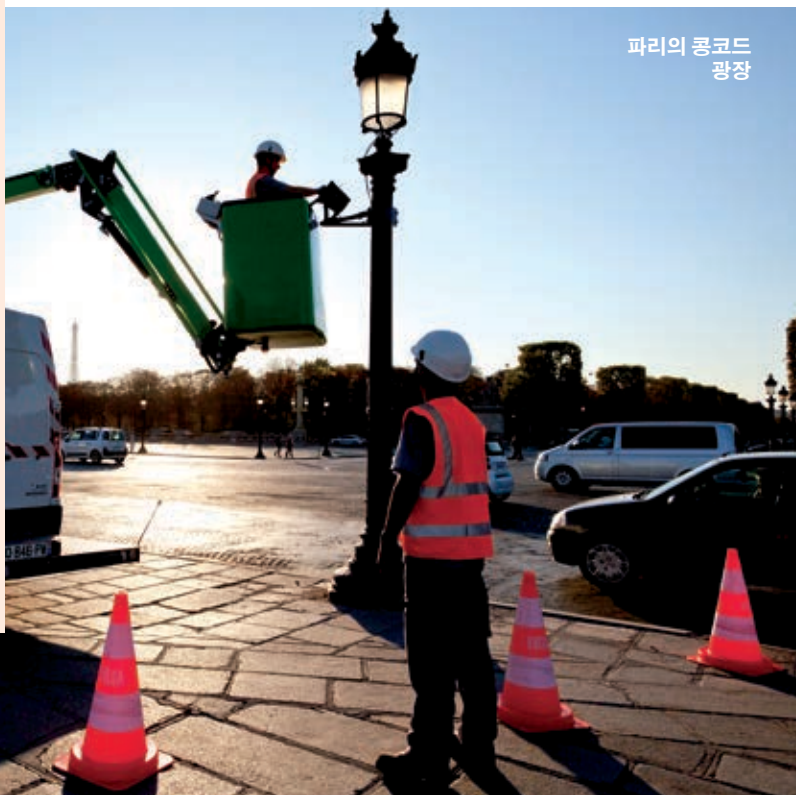
부이그 건설은 세계 5 대륙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으므로 강력한 잠재력이 있는 시장에 신속하게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 부이그 건설은 최근 리드비터와 토마스 베일을 인수함으로써 영국에서의 입지를 강화한 바 있다.

아시아에서 사업규모 십억 유로라는 상징적인 고지를 넘은 부이그 건설은 싱가포르의 스포츠 허브, 홍콩의 철도 터널 2 구간과 카이 락 유람선 터미널 등 대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총 3 층에 걸쳐 건평 150,000 m² 규모로 세워질 길이 800 m의 카이 락 유람선 터미널 건물은 2013년 완공 예정이다.

■ 에너지 & 서비스: 새로운 브랜드

2013년, 에너지 및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한 입지를 보다 잘 대변하고 부이그 건설의 설계, 건설 부문과의 보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ETDE는 부이그 에너지 & 서비스가 되었다.

부이그 에너지 & 서비스는 3대 사업부문인 에너지, 특히 송전 설비(가봉의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등 네트워크 인프라, 아미앵-피카르디 병원이나 영국 인필드 데이터 센터 같은 까다로운 사업의 에너지 및 열 공학 설계, 그리고 특히 장기적으로 반복적 수입을 창출하는 설비 운용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파리의 콩코드
광장

프랑스 부동산 개발의 선두 주자

부이그 부동산은 프랑스 35 개
지사와 유럽 4 개 지사를 거점으로
하여, 주택, 사무실 건물 및 지속가능
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부이그 부동산은 지속가능한
도시 분야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최근 몇 년간의 주택 예약매물에 힘입어 부이그
부동산의 **매출액**은 2012년 24억 유로에 달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주로 2012년 시장 위축에
따른 조정 정책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주택 사업

2012년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부이그 부
동산은 예약매물 10,516 채(2011년 대비 29 %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프랑스의 예약매물
은 9,945 채였다. "엔트리급-중급" 포지셔닝에
따라 부이그 부동산은 주택 최초 구입자에게 맞
는 상품을 적정 가격에 개발함으로써 최초 구입
자 공략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기업 및 상업 부동산

기업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
이그 부동산은 상당한 예약매물(5억 8100만 유
로)을 확보하여 **수주잔량**을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실적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
을 둔 부이그 부동산의 녹색 혁신 전략의 유효성
을 입증하고 있다: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에너지 생산(positive energy) 건물 Green Office®를 통한 **최고에너지 효율**. 그중에 이어 루에이-말메종과 낭테르에도 두 건의 사업이 시작되었다.
- **녹색 재건축**(Rehagreen® 1 방식). 장티이의 사노피 발 드 비에브르 캠퍼스와 이씨-레-물

직원수
1,582 명

2012년 매출액
23.96억 유로 (- 3 %)

경상영업이익
7.5 % (- 0.7 포인트)

그룹 지분 순이익
1.07억 유로 (- 11 %)

목표
2013년 매출액
25억 유로 (+ 4 %)

2012년 주요 사항

주택: 보르도의 친환경 키크
1차 공사분 인도 • 임대주택공사에
3,200 채이상의 주택 판매. **기업
및 상업 부동산:** 재건축 사업 시작:
장티이의 사노피 발 드 비에브르
캠퍼스 • 루에이-말메종의
유니레버 본사 신사옥 판매 • 그동의
Green Office®: 기대치보다
높은 에너지 효율. **사회적 책임:**
2011년 대비 여성 관리직 수 경미한
증가(전체 관리직의 37.4 %)

리노의 라 몽디알 프로젝트 등 두 건의 대표적
사업이 진행중이다.

- 파리의 클라랑스 건물, 루에이-말메종의 슈나이더 일렉트릭 건물, 마르세이유의 방크 포플레르 프로방살 에 코르스 은행 건물 등, **터키 방식의 건물**.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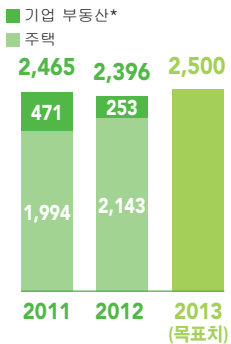
부이그 부동산은 지자체를 도와 에너지를 자급하는 지속가능 지구를 개발하고 있다. 부이그 부동산은 UrbanEra® 방식에 따라 리옹 공플뤼앙스에 에너지 생산 복합 지구 히카리 제1단지와 이씨-레-물리노의 IssyGrid® 사업을 진행하였다. 부이그 부동산은 또한 신규 및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보장하기 위해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함께 아벨티스를 창립하였다.

(1) 고객이 보유 자산의 건축학적 전통을 존중하는 가운데 재건축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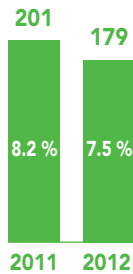


(*) 사무실 및 상업용 부동산

경상영업이익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을 %로 표기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 그룹 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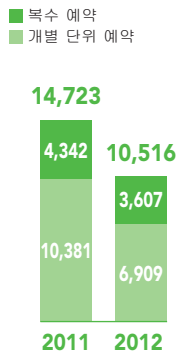
순현금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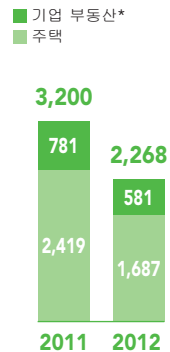
주택

예약매물수



예약매물

단위: 백만 유로



(*) 사무실 및 상업용 부동산



■ 장티이의 모범적인 재건축

장티이에 부동산 단지 30,000m²를 소유하고 있는 MACSF 그룹은 부이그에게 Rehagreen® 방식을 적용하여 2 헥타르에 달하는 부동산의 가치 제고 잠재성을 검토해 달라고 의뢰했다. 이는 사노피 그룹이 파리 지역 비에브르 사이언스 밸리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간과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발로드 & 피스트르 건축사무소가 설계한, 50,000m²에 달하는 차세대 캠퍼스를 조성하게 되었다. 2014년 말 사노피 직원 3,000 명이 이곳으로 입주하게 된다.

■ 히카리, 에너지 생산 복합 지구 제1 단지

부이그 부동산은, SLC 피탕스, 켄고 구마 건축사무소, CRB 건축사무소와 협력하여 히카리(일어로 빛이라는 뜻)를 조성하고 있다. 총면적 13,000 m²에 달하는 이 3 동의 주상복합 건물은 리옹 공플뤼앙스 신시가지의 워터 광장을 따라 조성되어 있다. 이 사업은 공간 구성과 다양한 설비를 통해 기능과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히카리는 2010년 WWF로부터 "지속가능 지구"로 인정받은 리옹 지능형 공동체 시범 프로젝트의 상징이다.





■ 모동의 GREEN OFFICE®,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

모동의 Green Office®는 프랑스 최초의 에너지 생산 대형 사무실 빌딩이다.

부이그 부동산이 설계하고 스코르가 매입한 이 빌딩에는 2011년 7월부터 스테리아 프랑스가 입주해 있다. 빌딩 운영과 사후관리는 사전에 정의된 사용 조건에 따라 에너지 소비 및 생산 등을 보장하는 에너지효율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1년간의 운영 후 취합된 데이터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보다 생산이 많았으며, 그 잉여분 또한 예측치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 최초 구입자에게 적합한 상품 제안

부이그 부동산은 "엔트리급-중급" 포지셔닝에 따라 자사 건물의 설계 및 건설 비용을 대폭 조정하였다. 부이그 부동산은 2011년부터 이미 가계의 구매력 하락에 대응하여 지급여력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에 따라 평방미터 당 2,000 유로(부가세 7 %) 대의 가족을 위한 아파트로 구성된 심포니 프로그램을 리옹 광역시의 생-퐁스에서 시작하였다.





도로 건설 부문의 세계 제일 기업

전세계 50 개국에 진출한 콜라스는
교통 인프라의 시공 및 사후관리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매년
100,000 건의 공사를 실시하는
콜라스 그룹은 해당 산업의 거의
전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어려운 환경(경기, 불리한 기후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2년 콜라스는 2011년 대비 **매출액** 5 % 성
장을 달성하고 **순이익** 3억 2백만 유로(- 10 %)
를 기록하였다. 2012년 말 기준 **순부채** 1억 7천
만 유로, **자기 자본** 25억 4400만 유로로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수주잔량**은 4 % 상
승하여 67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2012년 콜라스는 **골재** 1억 2백만 톤(허용 보유
량은 25년 생산량에 해당하는 26억 톤)을 생산
하였다. 160만 톤의 **유제** 및 4200만 톤의 **코팅
재**를 생산한 콜라스는 이 두 소재 생산 **세계 1 위**
를 점하고 있다.

도로 부문

프랑스 본토의 매출액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
지한 반면 **북유럽**에서는 성장세를, **중부유럽**에서
는 하락세를 보였다. **북미**의 경우 매출액 신장은
주로 캐나다 자회사의 역동적 사업활동으로 발생
하였다. **프랑스 해외영토**에서 사업활동이 증가하
였고 **아프리카**와 **인도양**에서도 발전양상을 보였
다. **아시아**와 **호주**의 매출액은 크게 성장하였다.

전문분야

전문분야의 사업활동은 다양한 경로로 진화하고
있다. **철도** 부문은 성장하여 양호한 수주잔량을
유지하고 있다. **정유 기반 제품 판매**는 유가 상
승으로 매출액이 상승하였다. 환율 요인을 동일
하게 적용했을 때 **도로 안전 신호** 부문은 안정적

직원수
62,806 명

2012년 매출액
130.36억 유로 (+ 5 %)

경상영업이익
3.1 % (- 0.7 포인트)

그룹 지분 순이익
3.02억 유로 (- 10 %)

수주잔량
67억 유로 (+ 4 %)

목표
2013년 매출액
132억 유로 (+ 1 %)

2012년 주요 사항

조직 개편: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프랑스 본토 도로 사업
조직 개편 시작(지방 7 개 자회사를
콜라스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

인수: 영국의 풀만 레일 • 칠레의
아길라(방수) • 남아공의 더스트-
어-사이드 (광산 공사)

- 프랑스 본토의 랭보(채석장)
- 뉴 칼레도니아의 (건설 자재 생산
회사). **주요 계약:** 남-몽펠리에
고속철도 • 알제 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 • 런던 시내 도로 관리

인 수준을 유지했으며 **방수** 부문은 어려운 환경
에 잘 저항했지만 **파이프라인** 부문은 하락했다.

책임있는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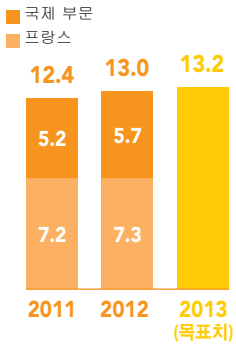
콜라스는 특히 자원 및 에너지 절감, 탄산가스
배출 감축(저온 코팅재), 안전 및 다양성에 관한
조치를 통해 **책임있는 개발**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프랑스에서 진행중인
최대의 고속도로 공사인
랑드 지방의 A63 공사현장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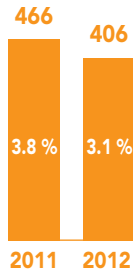
단위: 십억 유로



경상영업이익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을 %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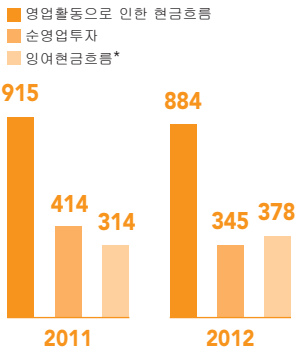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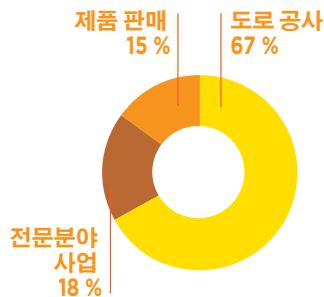


현금흐름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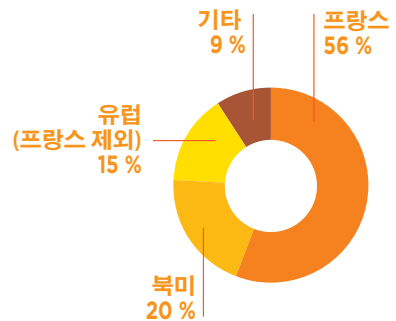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사업별 매출액



지역별 매출액



(*) 운전자금소요 변동분 제외



■ 랑드 지방 A63 공사의 성공

콜라스가 주도하는 아틀랑드 컨소시엄은 2011년 가을 양허 계약하에 A63 고속도로 105 km 구간의 도로 확장 및 공간조성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프랑스에서 진행중인 최대 규모의 고속도로 공사이다.

2012년 말까지 공사가 예정보다 더 빨리 진행 되었으므로, 남기에 앞서 2013년 봄에 1 차 구간을 인도할 예정이다. 이는 복잡한 대형 공사 실시에 있어 콜라스의 역량과 노하우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 건설 자재: 강력한 입지

콜라스는 도로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건설 자재를 생산함으로써 건설 및 사후관리의 전방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콜라스는 프랑스 및 국제 부문에서 채석장 683 개소, 유제 공장 138 개소, 코팅 공장 567 개소, 즉시 사용 가능 콘크리트 공장 212 개소, 역청 생산 공장 2 개소 등 밀도 높은 생산망을 보유하고 있다.

콜라스는 또한 유제 및 코팅제 세계 1 위 생산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직통합은 자재 조달을 확보하고 사용 제품의 품질을 통제하며 경쟁력을 제고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게 하는 등, 콜라스에게 경쟁 우위로 작용하고 있다.

조지아(미국)의 유제 공장





카사블랑카(모로코)의
트램웨이 노선

■ 철도 부문의 좋은 전망

종합적인 철도 사업부문(철도 인프라의 건설 및 관리)을 갖추고 있는 콜라스는 장기 관리계약, 지하철, 트램웨이, 신규 고속철 노선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응찰할 수 있다.

2012년 콜라스 레일은 남-몽펠리에 고속철 노선이나 알제 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를 확보하는 등 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지속적인 상승 요인(이동성 소요, 세계적 교류 및 무역 증가, 도시화, 일부 국가의 만성적 저투자, 강력한 환경적 요구)에 힘입어 철도 부문은 특히 국제 무대에서 콜라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콜라스의 중심 가치는 안전

62,800여 명의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특성과 엄청난 규모의 보유 설비(차량 및 공사 기계 65,000 대)를 감안할 때, 공사현장 안전 및 이동시의 안전 확보는 콜라스의 제 1 과제이다.

2012년 콜라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교육정책과 예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였는데, 특히 도로안전현장 4 차 갱신 및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예로 들 수 있다. 15 년간 프랑스 국내에서 콜라스 차량이 관련된 사고빈도는 65 % 감소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총 31 %의 직원이 응급구조 교육을 받았다.





프랑스 제1의 민영 텔레비전

무료 텔레비전 시장의 리더사인 TF1 그룹은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유료 텔레비전 분야에서도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시청각 저작권, 제작 및 라이선스 등의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 하고 있다

2012년 TF1의 매출액은 2011년 대비 안정세를 보여 26억 2100만 유로에 달했다. 경제환경 악화가 광고주의 결정에 악영향을 미친 결과 광고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다각화 사업의 성장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었다. 경상영업이익은 2억 5800만 유로에 달했다. 4800만 유로에 달하는 사업 최적화계획 비용을 감안할 때, 영업이익은 2억 1천만 유로, 그룹 지분 순이익은 1억 3600만 유로를 기록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무료 방송

프랑스 텔레비전의 리더사인 TF1 방송국은 2012년 4 세 이상 개인 시청률 22.7 %¹, 구매를 책임지는 50 세 이하 여성 시청률 25.5 %¹를 기록하였다.

TMC는 프랑스 5 위¹ 채널의 입지를 굳혔으며, NT1의 시청률도 역동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TF1 그룹의 네 번째 무료 채널인 HD1의 방송 개시로 무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 부문의 TF1의 서비스 제공을 더욱 강화했다.

TF1은 또한 디지털 멀티스크린(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 전략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

성장 기반

2012년에도 특히 유로스포츠, TF1 엔터프라이즈 및 텔레쇼핑의 성과에 힘입어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수익성을 제고하였다. 이들 사업은 TF1 그

직원수
3,990 명

2012년 매출액
26.21억 유로 (=)

경상영업이익
9.8 % (- 1.0 포인트)

그룹 지분 순이익
1.36억 유로 (- 26 %)

목표
2013년 매출액
25.40억 유로 (- 3 %)

2012년 주요 사항

시청률: TF1 그룹 시청률 28.4 %¹ (4 세 이상 개인) • 2012년 최고 시청률(전채널 통산): 1330만 명¹의 시청자가 앙포아레 콘서트 시청(3월 16일). **전략:**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즈 그룹과 파트너십 협정. **서비스 제공:** TF1 그룹의 네 번째 무료 채널인 고화질 무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 채널 HD1. **평등:** 다양성 라벨 (Afnor Certification) 차원의 실천 활동 지속적으로 추구

룹 내에서 성장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였다.

변화하는 그룹

2008년 ~ 2011년 기간 중 1억 5500만 유로의 비용절감을 달성한 TF1은 2014년 말까지 반복적 비용 8500만 유로 절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최적화계획 제2단계를 2012년에 시작하는 등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즈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TF1 그룹의 유료 콘텐츠 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TF1은 이렇게 사업모델의 지속적인 적응과 함께 성장 사업 발전을 꾸준히 추구하고 있다.

(1) 출처: 미디어메트리의 미디어맷 2012



평일 8시 뉴스
앵커 질 블로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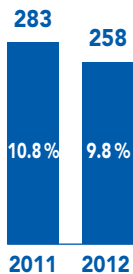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을 %로 표기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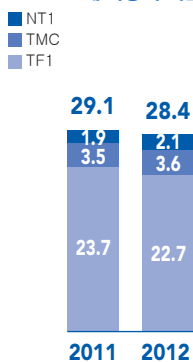
프로그램 편성 비용

단위: 백만 유로



그룹의 시청률 점유율*

4 세 이상의 개인



재방송 TV에서 시청된 무료 동영상

단위: 백만 건/월





<레블루셔너리 로드>의 케이트 윈슬렛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 독보적인 무료 서비스 제공

TF1 그룹은 부동의 1위 채널 TF1, 강력 성장가도를 달리는 TMC와 NT1, 그리고 2012년 12월 12일 방송을 개시한, 픽션 전문 채널 HD1으로 독보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F1 그룹은 TF1 채널의 강력한 위상을 유지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다른 3 개 채널의 편집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유관 당국과의 약정을 지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TF1은 무료 매체와 시청각 제작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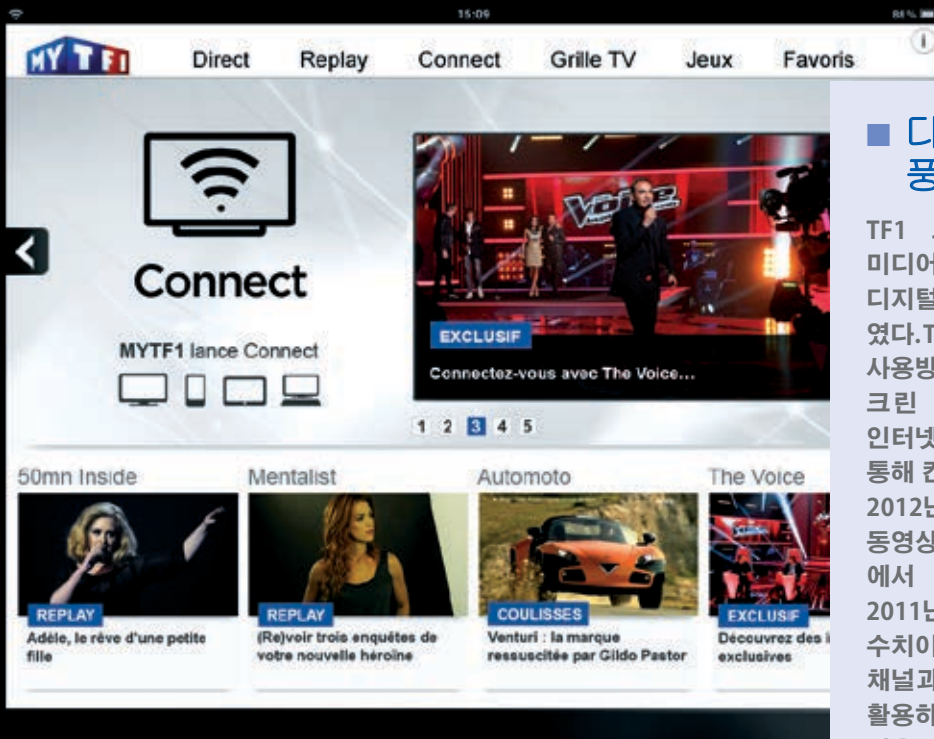
■ 유료 서비스 성장

TF1은 시청자들의 관심 주제를 다루는 유료 채널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전유럽 제1의 스포츠 플랫폼인 유로스포츠는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 발표된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즈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는 동분야 사업활동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콘텐츠 편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F1은 또한 원거리 판매, DVD 발매 및 유통, 주문형 비디오(VOD), 보드 게임, 음악 제작 등의 사업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유로스포츠와 유로스포츠 2에서 방송된 프렌치 오픈 롤랑-가로스 경기



■ 디지털: 풍요로운 관계

TF1 그룹은 2012년 소셜 미디어 어워즈에서 최우수 디지털 발자국 상을 수상하였다. TF1은 소비자들의 새로운 사용방식에 발맞추어 멀티스크린 텔레비전(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6억 5700만 건의 동영상의 재방송 TV(MYTF1)에서 시청되었는데, 이는 2011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이다. TF1 그룹은 모든 채널과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청자와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가꿔 나가고 있다.

■ 책임있는 기업 TF1

TF1은 프랑스 제1 미디어 그룹으로서의 책임을 인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략방향에 포함시켰다. TF1 그룹은 특히 방송 출연이나 프로그램 편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차별 없는 통합적인 방송, 연대, 사회적 관계,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를 장려하는 방송을 추구하고 있다.

기회와 처우의 균등 및 차별 방지를 위한 TF1의 모범적인 활동은 독립 기구(Afnor Certification)가 인증하는 다양성 라벨로 입증되고 있다.

TF1 기업재단은
기회의 균등을
장려한다





이동통신, 유선통신, TV 및 인터넷 사업자

프랑스 전자통신 시장의 세 번째 사업자인 부이그 텔레콤은 1310만 가입자에게 보다 편리한 디지털 라이프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

무선통신: 현격한 변화의 한 해

2012년은 프랑스 이동통신 시장에 약정기간이나 단말기 없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저가 상품을 제공하는 네 번째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현격한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

기존의 시장과 병행하여 이 새로운 시장이 점차적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의 분할이 급변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이그 텔레콤은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 주었다.

상반기에 이동통신 고객이 상당 부분 감소한 후, 부이그 텔레콤은 특히 약정기간이나 단말기 보 조금 없이 100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이동통신 브랜드 B&YOU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부이그 텔레콤은 2012년 **신규 요금제 고객 318,000 명** 성장이라는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고속 유선통신: 지속적인 성장

고속 유선통신 시장에서 부이그 텔레콤은 605,000 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여 총 고속 유선통신 가입자 1,846,000 명을 기록함으로써 성장을 계속하였다. 2012년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족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Bbox 상사시용**이 출시되었으며 초고속통신(뉴메리카를 통신망 포함) 고객이 증가하여 289,000 명에 달했다.

직원수
9,659 명

2012년 매출액
52.26억 유로 (- 9 %)

경상영업이익
2.3 % (- 7.5 포인트)

그룹 지분 순이익
- 1600만 유로

목표
2013년 매출액
48.50억 유로 (- 7 %)

2012년 주요 사항

1월: 월 19.99 유로에 무제한 음성 통화와 문자 및 MMS, 데이터 통신 3 G를 제공하는 새로운 B&YOU 요금 출시. **3월:** 에덴 요금제 단순화 • 4G 통신망 전개 시작. **6월:**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제공되는 Bbox 상사시용 출시. **8월:** 다르티 226 개 매장에서 부이그 텔레콤 상품 판매 개시 • 다르티 텔레콤 인수. **11월:** B&YOU, 최초로 월 9.99 유로에 무제한 음성 통화와 문자 및 MMS를 제공하는 요금 출시

경제 모델의 진화

유선통신 매출액의 강력한 증가(+ 51 %)에도 불구하고, 저가 요금제 기반이 점차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정부 규정 접속료가 또 다시 하락하였으므로 **매출액**은 2011년 대비 9 % 하락하고 **EBITDA¹**는 3억 6400만 유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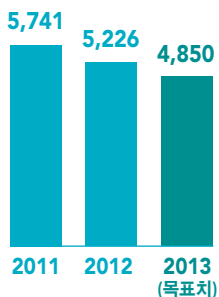
이러한 환경에서 부이그 텔레콤은 요금제의 재구성 및 단순화, 자산 매각, 2013년 말까지 3억 유로 비용절감계획 등 이동통신 사업 **개편계획**을 실행하였다. 1억 1800만 유로의 비경상 비용을 반영한 영업이익은 4백만 유로였으며, 그룹 지분 순이익은 1600만 유로의 손실을 기록했다.

(1) 경상영업이익에 순감가상각배정액 및 순준비금을 더한 후 미사용준비금 재가입분을 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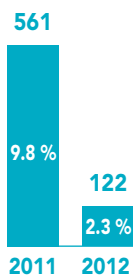
2012년 말 부이그 텔레콤의 고객은
1310만 명에 달했다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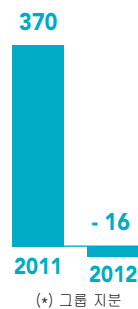


경상영업이익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을 %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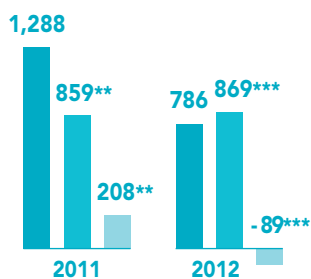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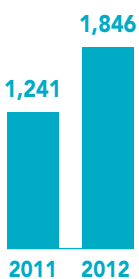


현금흐름 창출 단위: 백만 유로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순영업투자
■ 잉여현금흐름*



고속 유선통신 고객 단위: 천 명



이동통신 고객 단위: 천 명



(*) 운전자금 소요 변동 불포함
(**) 2.6 GHz 주파수 투자(2.28억 유로) 불포함
(***) 800 MHz 주파수 투자(6.96억 유로) 및 예외적인 자산 매각 (2.07억 유로) 불포함



■ 4G: 언제나 더 빠르게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데이터" 사용증가에 따라, 부이그 텔레콤은 2012년 3월 4G 통신망 전개를 개시하고 리옹에서 400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테스트하였다. 4G의 장점은 초고속 유선통신망에 비견할 수 있는 속도(115 Mbits/s 까지)를 통해 인터넷 상 데이터 접속이 거의 즉각적이라는 데 있다.

4G 통신망의 상용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는 동시에 부이그 텔레콤은 기존 통신망을 개선하여 고객들 (서비스 지역 인구의 58 %)에게 3G+(HSPA) 보다 거의 6 배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제2세대 UMTS

■ 100 % "온라인" 이동통신 사업자 B&YOU

2011년 7월 부이그 텔레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B&YOU는 약정기간이 없는 100 % "온라인" 이동통신 사업자이다.

네 번째 사업자 진입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분할이 더욱 강화된 환경에서, B&YOU는 보조금 없는 저가 요금 시장에 입지를 구축하였다. 2012 말 기준 고객수는 1,078,000 명이다.

경쟁력 있는 가격의 후불 및 선불 요금제를 갖춘 B&YOU는 고객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품 라인업을 재정비하고 있다. B&YOU 고객 역시 우수한 부이그 텔레콤 통신망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상세 정보: www.b-and-you.fr



Exclusivement sur
b-and-you.fr

B&YOU



■ BBOX 상사시용

2012년 6월 출시한 부이그 텔레콤의 최신 셋톱박스 Bbox 상사시용은 모든 통신망(ADSL, 케이블, 광통신)에 연결할 수 있다. Bbox 상사시용으로 부이그 텔레콤은 고객들에게 종합적이고 유연하며 사용이 간편한 디지털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Bbox 상사시용은 양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2012년 10월 17일 최고광대역체험상¹을 수상하였다.

부이그 텔레콤은 또한 다르티 226 개 매장과 판매협약을 체결하였다. 부이그 텔레콤 다르티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이 상품은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1) 브로드밴드 인포비전 어워드는 전세계에서 최고의 혁신적인 유선 인터넷 상품들을 선정하여 상을 수여한다

■ 중고폰: 새로운 생태계

리코 머스 솔루션즈와의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서비스를 통해, 2012년 7월부터 사용자들은 B&YOU(www.revente-telephones.b-and-you.fr) 매장에 자신의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010년부터 클럽 부이그 텔레콤 매장과 bouyguestelecom.fr을 통해 제공되던 중고폰 재구매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000만 유로 이상을 고객들에게 재지급하였다.

2011년 부이그는 프랑스에서 업계 최초로 자사의 재활용 부서를 통해 수거한 중고폰 샵을 개장한 바 있다. bouyguestelecom.fr 및 B&YOU.fr을 통해 통신사 잠금을 해제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품질보증과 함께 구입할 수 있다.



사업부문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표



www.bouygues.com
상세 정보 조회 ➡

■ 부이그 건설

목표	지표	단위	2011	2012	비고
지속가능한 삶의 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친환경적으로 설계	환경 인증이나 라벨 약정이 포함된 건물계약 수주 비중 • 범위: 전세계 (건설 부문)	%	55	57	부이그 건설은 고객들에게 환경인증을 홍보하고 사내 전문성을 개발하였다(전문가 그리고/또는 감정인 자격 보유 직원 92 명).
환경을 존중하는 공사현장 실천	Iso 14001 인증 환경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활동 비중 • 범위: 전세계 (양허 부문 제외)	%	88	89	보다 광범위하게 인증정책을 전개함 으로써 부이그 건설의 환경영향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데 기여 하고 있다
인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 개발	주민 의견 수렴, 홍보 또는 만족조사를 실시한 공사현장 비중 • 범위: 전세계 (부이그 에너지 & 서비스 및 VSL 제외)	%	65	68	부이그 건설은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수행하며, 공사현장이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부이그 부동산

녹색 부동산을 성장동력으로 추진	BBC*-effinergie® 라벨 주택 판매 비중	%	78	97	2010년 7월 BBC*-effinergie® 라벨을 모든 사업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 크게 증가. 목표: HPE 및 Bepos(2012년 최초의 Bepos 주택 프로그램을 엑-상- 프로방스에서 인도) 주택 수 증가.
	Rehagreen® 방식을 적용하여 공사중이거나 인도한 제3부문** 면적 (2011년 본 방식 실시 시작 이후 누적 집계 수치)	m² 누적치	23,614	75,821	사노피 발 드 비에브르 캠퍼스 착공. 50,000 m²의 Rehagreen® 프로그램. 목표: 제3부문**의 지속가능한 재건축을 위한 Rehagreen® 작업방식 전개.
	연중 프랑스 내에 건설허가서를 제출한 사무실 건물의 최종 에너지 소비	kWh/ m²	31	30	르몽의 최초의 Green Office® 1년 가동 후 모델 검토. 목표: Green Office®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무실 건물의 에너지 평가 최적화.

(*) RT2005 / RT2012 법률 기준에 의거한 에너지 저소비 건물

(**) 제3부문: 사무실 및 상업용 건물

Bepos: 에너지 생산 건물 - HPE: 에너지 효율음

■ 콜라스

목표	지표	단위	2011	2012	비고
지역내 대화 및 소재 생산장 수용성 진흥	지역내 대화 구조가 적용되는 생산장 • 범위: 전 세계 • 적용대상: 생산 매출액의 100 %	%	44	45	모든 지역에서, 특히 골재채취장 및 채석장의 경우 수용성이 매우 높은 정책. 목표: 2년 내에 50 % 달성.
역청 코팅재 재활용 장려(자재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역청 재활용을 위한 코팅 골재 재활용율 • 범위: 전 세계 • 적용대상: 생산 매출액의 100 %	%	12	13	해당 물량을 고려할 때 상당한 달성 (2012년 40만 톤 증가). 목표: 2015년까지 재활용 코팅재 평균 15 % 달성.
직원들에게 응급구조 교육	응급구조 교육을 받은 직원 비중(기말) • 범위: 전 세계	%	32	31	2012년 기준 응급구조 교육을 받은 직원들의 누적집계 19,740 명. 목표: 2015년까지 35 % 달성.

■ TF1

윤리 원칙 적용 보장, 법적인 틀 개발에 참여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관련 CSA의 개입(경고, 명령, 제재절차)	건	5	(*)	경각심 강화, CSA와 정기적인 협의, <온라인 게임 및 내기 현장> 최종 완성, 다양성에 대한 약정, 자막에 대한 현장 체결.
대중과, 기타 당사자들과의 대화 강화	SNS 상의 팬 수	백만 명	-	15	TF1은 의견교류와 반응을 접할 수 있는 보고인 SNS 활동을 개선, 증가시키고 있음. 많은 진행자들이 트위터 팔로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 (http://www.tf1.fr/tf1-et-vous/).
TF1 그룹 방송에서 연대와 사회적 유대 진흥	사회연대 활동의 총 가치 환산**	백만 유로	21.3	28.9	제6회 <고용을 위한 일주일>, 다양한 연대사업을 위해 프라임 타임을 적극 활용(Restos du coeur: 취약층 식사 제공, Pièces jaunes: 동전 모으기, Sidaction: 에이즈).

(*) 2013년 9월 CSA(프랑스 시청각위원회)의 2012년 평가서가 발표되면 확인된 최종 데이터 조회 가능. CSA 연례평가서가 발간되는 즉시 <http://www.groupe-tf1.fr/rse/>에서 조회할 수 있음.

(**) 협회들에게 제공한 현금 기부금, TF1 및 주재 채널들(재단 제외)의 현물 기부(무료 방송시간 및 광고시간 제공, 동영상 제작, 기술 서비스).

■ 부이그 텔레콤

보다 많은 이들이 부이그 텔레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	장애인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클럽 부이그 텔레콤 매장 조성 (*) 대리점 및 직영매장	개 매장	366 (총 421* 개 매장 중)	380 (총 429* 개 매장 중)	친환경 설계 및 장애인들의 접근 편의를 고려한 새로운 매장 컨셉 전개.
기업의 생태발자국 감소 및 고객의 생태발자국 감소에 기여	전년도 대비 에너지 소비 변화(사무실, 통신 사업장, 데이터 센터)	%	+ 4	- 3	모든 사업장에 Iso 50001 타입의 관리체계 실행(2012년 12월 31일 기준 총면적의 10 % 인증).
	일반 고객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중고 휴대폰 회수	대	94,600	142,800	클럽 부이그 텔레콤 매장의 중고폰 회수 서비스 홍보 강화. bouyguestelecom.fr를 통한 재활용 최적화 및 B&You를 통한 서비스 개시. 중고폰 판매 확장.



보다 지속가능한 세계 건설

92,800 명의 알스톰 직원들은 전세계 약 100여 개국에서 4 대 사업부문 - 써멀 파워, 리뉴어블 파워, 그리드, 트랜스포트 - 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에서 일하고 있다.

프로필

알스톰은 전력 생산 인프라, 전력망 관리 및 철도 교통 부문의 세계적 리더사 중 하나이다.

전기 생산

전기발전의 모든 기술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알스톰은 **써멀 파워** - 가스, 증기, 원자력 발전과 자동화 및 제어, 서비스 담당 - 와 **리뉴어블 파워** - 수력, 풍력, 태양 에너지를 비롯한 기타 재생 에너지 담당 - 의 두 사업부문을 통해 시장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알스톰은 터키 방식의 발전소 건설, 수력 발전, 공조 시스템 및 발전용 서비스 분야의 세계 1 위 기업이다. 또한 기존 발전소의 재건축, 업그레이드, 리노베이션 및 현대화 분야에도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알스톰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발전소의 25 %에 최소 한 대 이상의 주요 설비를 공급하였다.

"청정 에너지"의 선두 주자 알스톰은 고객들과의 협력 하에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한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제안, 개발한다:

- 탄소가스 저배출 발전기술 개발,
- 발전소의 에너지 및 환경 효율 제고,
- 자사 발전소의 탄소가스 포착 및 저장. 알스톰은 이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전력망 관리

알스톰 그리드는 전력망용 기술 부문 세계 리더사로서, 중고압 교류 및 직류 변전소 같은 통합 서비스를 사업자와 산업체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2012/13년 회계연도 상반기 수치
(2012년 4월 1일 ~ 9월 30일)

직원수

92,800* 명

매출액

97.48억 유로 (+ 4 %)

영업이익

7.2 % (+ 0.5 포인트)

그룹 지분 순이익

4.03억 유로 (+ 11 %)

수주잔량

121.29억 유로 (+ 19 %)

(*) 2012년 12월 31일 기준

주요 사항

2012년 4월: 프랑스의 해상 풍력발전소(20억 유로).

2012년 8월: 인도의 초고압 송전선(4억 유로). **2012년 9월:** 브라질의 육상 풍력발전소(2.7억 유로).

2012년 10월: 영국의 가스 발전소(4.1억 유로). **2012년 12월:** 독일의 복합화력발전소(3.5억 유로)

• 이탈리아의 지방 열차(4.4억 유로). **2013년 1월:** 에티오피아의 수력발전 장비(2.5억 유로).

솔루션들은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개발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을 크게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포함하여 장거리 송전으로 국가와 대륙을 잇는 슈퍼그리드 설립에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철도 교통

알스톰 트랜스포트는 고속철에서 도시 경전철에 이르기까지 철도 교통 시장 전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알스톰은 차량뿐 아니라 인프라, 신호 장비, 정비 서비스 및 터키 방식의 철도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알스톰은 고속 및 초고속철 분야 세계 1 위 기업으로, 현재 전 세계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발전기
알리아드



강력한 증기 터빈 아라벨



2012년 12월 12일 개통한 카사블랑카
(모로코)의 트램웨이

에서 1,000 대 이상의 알스통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도시 철도 부문 역시 1 위를 점하고 있는데, 전세계 지하철 4 대 중 한 대, 트램웨이 3 대 중 1 대를 알스통이 제공하고 있다.

실적

높은 수주량

2012년 4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알스통은 전년 동기 대비 19 % 증가한 121억 유로의 높은 수주실적을 보였다. 트랜스포트 부문은 46억 유로 수주로 2008년 이후 최고의 반기를 기록하였다. 상반기 매출액은 97억 유로로 4 % 증가하였다. 영업이익이 향상되어 12 % 성장한 7억 3백만 유로를 기록하고 영업이익율은 2011/12년 상반기의 6.7 %보다 높은 7.2 %를 기록했다.

3분기에도 긍정적 트렌드 확정

3분기에 51억 유로를 수주한 알스통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도 좋은 영업실적을 보였다. 2012/13년 회계년도 첫 9 개월 동안 알스통은 전년 동기 대비 14 % 증가한 172억 유로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이러한 성장은 신흥국의 역동적 수요에 힘입은 바 크다. 트랜스포트 부문은 같은 기간 수주량이 50 % 상승하였다.

부문별 수주량

단위: 십억 유로

	2011/12	상반기	2012/13
그리드	10.2	+ 19 %	12.1
써멀 파워	1.9	+ 18 %	2.2
리뉴어블 파워	4.6	+ 2 %	4.7
트랜스포트	1.0	- 41 %	0.6
	2.7	+ 72 %	4.6

신기술

알스통은 고속성장국 진출 및 사업 개발을 꾸준히 추구하는 가운데 신기술 부문 활동 역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알스통은 미국 회사 브라이트소스에너지(집광형 태양열 발전 전문사)의 참여지분을 증가시켜 20 %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조력발전 설계업체인 영국의 타이덜 제너레이션 Ltd 인수를 발표하였다.

BOUYGUES

부이그 그룹
본사

32 avenue Hoche
75378 Paris cedex 08
France
전화: +33 1 44 20 10 00
www.bouygues.com

부이그 건설
본사

Challenger
1 avenue Eugène Freyssinet - Guyancourt
78061 Saint-Quentin-en-Yvelines cedex
France
전화: +33 1 30 60 33 00
www.bouygues-construction.com

부이그 부동산
본사

3 boulevard Gallieni
92445 Issy-les-Moulineaux cedex
France
전화: +33 1 55 38 25 25
www.bouygues-immobilier.com

콜라스
본사

7 place René Clair
92653 Boulogne-Billancourt cedex
France
전화: +33 1 47 61 75 00
www.colas.com

TF1
본사

1 quai du Point du jour
92656 Boulogne-Billancourt cedex
France
전화: +33 1 41 41 12 34
www.tf1.fr

부이그 텔레콤
본사

32 avenue Hoche
75008 Paris
France
전화: +33 1 44 20 10 00
www.bouyguestelecom.fr



기업개요는 부이그 그룹 홍보부가 발간한 문서이다. 디자인 - 제작: AC2 Communication - 인쇄: Typoform (에손느 지방), PEFC(지속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숲의 목재를 사용한 인쇄용지) 인증 업소이자 친환경 인쇄 Imprim'vert® 브랜드 소유. 2013년 2월.



꼭 필요한 수량만큼만 한정 인쇄한 문서이므로 본 문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 주십시오. 부이그는 프랑스의 종이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조직, 자원 조달, 지원하는 EcoFolio에 환경기부를 합니다. 또한 부이그 그룹 인터넷 및 인트라넷 사이트에서 추가 자료(슬라이드, 동영상, 자료)가 있는 인터랙티브한 기업개요를 만나실 수 있으며, 태블릿용 부이그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버전 제작: Prestimedia.



표지: 부이그 건설, 부이그 부동산, 콜라스 및 TF1 본사; 스코나(부이그 텔레콤의 영업, 마케팅, 행정 업무 부서)가 자리함). 크레딧: S. Arbour (p. 17), D. Azoulay (p. 3), Balloide-Photo 64 (p. 27-28), F. Barthet (표지), L. Benevelli (p. 21), Bouygues Telecom (p. 8, 36-37), Y. Chanoit (p. 9), C. Chevalin (p. 31), W. Choroszewski (p. 28), R. Cosstick (p. 9), A. Da Silva/Graphix-Images (표지, p. 5, 36), DR (p. 19), 2009 Dreamworks LLC (p. 32), H. Fabre (p. 7, 29), A. Février (표지, p. 7), Getty Images (p. 32), O. Guerrin (p. 5), P. Guignard/Air-Images (p. 6, 20), E. Lamperti (표지 3 면), E. Mather on Balaz (p. 35), D. Mattioli (p. 21), V. Paul (p. 16), P.-E. Rastoin (p. 1), © Sony Pictures Television Inc. (p. 9), P. Thébaud (p. 29, 표지 3 면), C. Thomas (p. 24), L. Zylberman/Graphix-Images (p. 20, 25). 건축사무소: Architectonica (표지), Agence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p. 17), Kengo Kuma and associates (p. 24), Léger Denys - Archigroup (p. 25), R. Lopez & Associés (표지), OMA (p. 9), C. de Portzamparc (표지), P. Riboulet (표지), K. Roche (캘린저), K. Roche J. Dinkeloo & Associates/SRA Architectes (32 Hoche), Saubot & Julien (표지), Valode & Pistre (p. 23-24), J.-M. Wilmotte (p. 9).